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Intraculturalism)에 관한 연구

양 숙 희* · 정 세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Intraculturalism in 21st Century Fashion

Sook-Hi Yang* · Sehui Chung**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08. 9. 30, 심사(수정)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ormat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al value of the intraculturalism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and to confirm the functions of intraculturalism to establish, visualize, perform the racially indeterminate, ethnically neutral, culturally diverse or ambiguous identity. For this study, the applications of the intraculturalism shown in mass media and consumer culture, such as music, fashion advertisements and collections of high fashion designers from 2004 to 2008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Intraculturalism is reflected in the muticultural music such as Afropean, Jawaiian, Reggaeton and Asian Hip Hop. Intracultural music genres create the hybrid music and fashion culture through mixing, matching and blending one and another culture. Advertisement campaigns for Louis Vuitton, YSL Beauty, Gap and H&M stores have all purposely highlighted models with mixed racial heritage. It is reflected in the latest youth fashion market trend using face that are ethnically ambiguous. The increasingly multiracial, multicultural population is due to intermarriage and waves of immigration. The rising mixed race designers, Narciso Rodriguez, Hussein Chalayan, Vera Wang and DooRi Chung, not only compromise and amalgamate different cultural elements of their heritage and contemporary life but also create new look and fashion image. The characteristics of intraculturalism expressed in the 21st century fashion could categorized into de-genre, de-nationality, de-race and de-culture.

Key words: intraculturalism(인트라컬추럴리즘), culture(문화), fashion(패션)

I. 서론

21세기 사회는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여 여러 문화가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국제결혼이나 이(異)민족 간 결합이 증가함에 따라 민족, 종교, 언어, 이념의 벽을 넘어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혼성된 다중적 정체성이 제기되고 다문화주의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철학자 김리카(Will Kimicka)는 다문화 사회를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한 국가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다민족(multinational) 사회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하는 복합인종(polyethnic) 사회로 구분한다¹⁾. 다문화 사회 내의 다민족, 복합 인종적 특성을 나타내는 혼혈이나 이민 '2세대', '3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다양성, 다문화를 혼합,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감성들을 바꾸고 시험하고 재창조하는 인트라컬추럴리즘(intraculturalism)의 혼성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은 주류 문화 없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각 민족의 고유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서 이(異)문화 간 교류와 결합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문화를 의미한다. 세계화,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해외여행의 급증과 위성방송, 케이블 TV, 인터넷의 보급을 통한 세계 각지의 실시간 정보 및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 간 상호 접촉과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문화체계들이 각각 외부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항상 다른 문화와 접촉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적 이식현상을 지속하게 해주고 있다. 이에 인트라컬추럴리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패션에 나타난 이질적인 문화와 인종적 혼성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이국취향²⁾, 에스닉³⁾, 동양이나 오리엔탈 복식에 관한 연구⁴⁾와 인도,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등 특정 국가나 문화권의 전통복식 요소에 관한 연구⁵⁾ 등이 있으며,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⁶⁾와 퓨전이미지에 관한 연구⁷⁾에서 민족적 하이브

리드와 에스닉적인 퓨전이미지가 논의되었다. 이국취향, 에스닉, 오리엔탈, 하이브리드나 퓨전과 같은 패션 경향들은 자국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수용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비서구의 복식들이 서구 문화권내에서 신비로움과 신선함을 전달해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서구 중심의 세계통합주의(globalism)에 반발하여 자국 문화를 세계화(globalization)하거나 세계문화를 자국화(localization)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문명권으로부터 차용해 온 복식의 모든 요소들과 양식들을 한꺼번에 결합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 간의 혼합과 이민 등을 통해 민족적 다양성, 복수 민족적, 복수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전통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혼합하는 인트라컬추럴리즘적 정체성이 현대의 소비사회, 미디어 사회에서 스타일, 이미지 생산, 외모와 연결되어 창조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룩, 스타일, 이미지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사회 내의 문화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문화 간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자의 문화에 대해 개방성과 대응력을 요구하는 인트라컬추럴리즘적 정체성을 반영한 패션의 미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논문, 인터넷 자료 등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인트라컬추럴리즘을 정의하고, 복식이 시각적 대상을 감안하여 패션관련 인쇄매체,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인트라컬추럴리즘이 미디어와 소비문화를 통해 가시화되는 양상을 21세기 어번 뮤직, 패션 광고, 하이패션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표현방식, 디자인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하이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이며, 세계 패션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런던, 뉴욕에서 활동하며, 런던과 뉴욕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매 시즌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2000년-2008년 사이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The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와 영국 패션 협회(British Fashion Council)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어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서구 출신 이민세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인트라컬추럴리즘

현대 세계는 글로벌화, 세계화로 급격한 지리적, 정치적 지각 변동, 전 세계에 걸친 이민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가 내 소수민족 및 소수집단과 이민자 집단 등의 권리자각 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북미의 국가들은 결코 내적으로 동질하지 않은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총체로, 그 안에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동질성을 지향하던 서구 정치 세계 내에서 민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의 다양성이 재발견됨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격화된 형태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인종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데올로기가 재등장하고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Intraculturalism)은 Cheski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다민족, 다문화적인 현대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유동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다른 문화보다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태도와 전통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하며⁸⁾,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하나의 문화권 내에 거주하며 서로 다른 민족 혹은 인종적 배경에 따라 다양성과 특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⁹⁾. 문화 이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하위 주제에 관한 연구나 개발학, 사회학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은 각기 다른 집단들이 동일한 집단을 구성하여 전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징지우는 다양한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¹⁰⁾. 이는 두 개 이상의 혼합된 인종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에스닉 정체성의 영향을 결합하고, 공유하고, 재창조하는 문화적 정체성으로, 동일한 컨텍스트 안에서 상이한 문화적 실천들을 의식적으로 결합하여 형식을 융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새로운 실천을 창조한다¹¹⁾.

인트라컬추럴리즘은 국가적 혼합을 통해 이뤄진 문화 내에서 문화적 분리나 상대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소위 이상적인 공동체 특성이라 할 수 있다¹²⁾. 또한 인트라컬추럴리즘은 포스트식민주의의 국가적 혹은 글로벌 헤게모니에 의해 생산된 문화적 지배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공유한다¹³⁾.

인트라컬추럴리즘은 1980년대 말엽 균열된 정체성과 다중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주류문화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위해 시작된 다문화주의 운동이 1990년대에 이르러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낮은 시각도 수용함으로써 상호문화를 비교하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전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경 1%미만이었던 타인종간의 결혼 비율이 2000년에는 6%에 달했다. 2000년 미국 인구 조사에서는 이전에 단순히 “기타”라고 표시하던 것과 달리 혼합 인종적 유산을 보다 정확하게 표기하게 함으로써 인구의 다양성을 확인했는데, 700만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한 가지 이상의 인종으로 표시함으로써 이전에는 노출하기를 꺼려했던 자신들의 복수 인종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표출했다. 이에 따라 백인과 하와이인의 혼혈을 이르는 하파(Hapa), 혼혈을 의미하는 믹시칸(Mixican), 절반은 아시아인 절반은 백인을 이르는 할퍼(Halfer),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을 이르는 블라시안(Blasian)과 블랙커니즈(Blackkanese), 푸에르토리카계 뉴욕 거주자를 일컫는 뉴요리칸(Nuyoricans), 아시아나 태평양 연안에 복역하는 미국인이 현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메라시안(Amerasian) 등 점차 모호해지는 인종적 특성을 반영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복수 인종적 특성을 지니는 하파, 믹시칸, 뉴요리칸, 아메라시안 등과 북미국과 유럽의 청년문화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히스패닉, 아시아 아메리칸, 아프로피언 등은 지배 문화에의 동화를 중시하던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 달리 문화적 차

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며 자신들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모(母)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중시하고, 모문화의 관습이나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인트라컬추럴리즘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서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민족적 다양성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인트라컬추럴리즘은 21세기에 이르러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트라컬추럴리즘적 정체성이 창조해낸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이 MTV, BET¹⁴⁾ 등의 음악 채널과 텔레노벨라(telenovela)¹⁵⁾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와 마이스페이스(MySpace)¹⁶⁾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됨에 따라 억압받고 소외된 하위주체였던 이들의 정체성 표현 방식이 주류 문화와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며, 주류 패션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다민족, 복수 인종적 특징을 나타내는 모델과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중적 정체성을 장점으로 하여 부각되고 있다.

Ⅲ. 인트라컬추럴리즘과 21세기 패션

인트라컬추럴리즘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와 에스닉 집단, 인종 그리고 종교가 공존하면서 대두된 개념으로,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며¹⁷⁾,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다문화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특정 문화의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는 다중 문화적, 복수 인종적 특성을 나타내는 인트라컬추럴리즘적 다중 정체성은 텔레비전, 영화, 음악,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대중문화 내에서 혼합, 공유,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하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룩과 다문화적이고 절충적인 스타일과 이미지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대중적인 유행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특정 문화의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는 다중 문화적, 복합 인종적 특성을 가진 젊은 세

대가 대중문화의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체성 표현 수단인 음악, 패션 등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인트라컬추럴리즘은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음악은 집단정체성에 있어 중요하며, 공동체는 그들이 음악적 기억들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 또한 음악은 젊은이들의 지위와 정체성의 복잡한 게임에서 타인과 차이를 구별짓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¹⁸⁾. 의복과 외모는 공동체 내의 착용자의 지위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더불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음악과 패션은 현대사회에서 개인, 집단, 국가를 교섭하는 역할과 함께, 사회 환경의 유용한 부분으로 시각적인 스타일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다¹⁹⁾. 이에 음악과 패션은 인트라컬추럴리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1. 인트라컬추럴리즘과 어번 뮤직 패션

인트라컬추럴리즘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성방송,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트라컬추럴리즘은 이들 미디어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해체, 파괴, 반항적 특성을 나타내는 10대, 20대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 내에서 창조적인 개념을 추가하여 새로운 문화코드를 출현시키고 있다.

다민족, 복합 인종적 정체성과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유러피언, 아시아인 아메리칸, 히스패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음악 장르 개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음악적 취향,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사고와 소비패턴이 비슷한 젊은이들은 이러한 음악장르를 통해 공동관심사와 외적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어번 뮤직(Urban Music)은 다중적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음악 장르로 어번 컨템포러리(Urban Contemporary)라 불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음악 라디오 형식을 일컫는 용어이다. 1970년대 중반 뉴욕의

DJ Frankie Crocker가 사용하기 시작한 신조어인 어번 컨템포러리는 힙합/랩, 컨템포러리 R&B, 레게나 레가톤(Reggaeton) 같은 캐리비안 음악들을 주로 방송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뮤직이나 라티노 뮤직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R&B는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레가톤은 라티노와 관련성이 깊은 음악 장르이다. 어번 컨템포러리는 18-34세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75%가 넘는 청취자들이 백인이며 아시안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청취자도 상당수임이 밝혀지고 있어서 어번 뮤직을 통한 하위주체적인 인트라컬추럴리즘의 다중 정체성이 주류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21세기에 이르러 복수 국가, 인종, 문화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트라컬추럴리즘이 반영된 어번 뮤직은 초국가적·초문화적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으며, 청년들이 차이와 '타자' 인식을 통해 권능이 박탈당한 소수 문화에 호감을 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인종적, 성적, 계급적 차이가 있는 다양한 형식들을 전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²¹⁾.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특성을 갖는 뮤지션들은 MTV, BET와 뮤직비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해 선도적인 청년 문화, 새로운 룩과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주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은 상품과 이미지의 소비를 통한 모방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음악뿐 아니라 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 유행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인트라컬추럴리즘을 반영하는 대표적 어번 뮤직으로 아프리카인(Afropean), 자와이언(Jawaiian), 레가톤(Reggaeton), 아시안 힙합(Asian Hip Hop)을 들 수 있다.

1) 아프리카인(Afropean)

아프로피언(Afropean)은 아프리카와 유럽 모두와 관련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인의 취향과 경향성을 띠는 아프리카계를 지칭한다. 특히 아프리카인과 유럽인의 혼혈을 뜻하거나 아프리카와 유럽의 전통을 혼합한 퓨전

스타일 음악을 가리키기도 한다²²⁾.

아프로피언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의 Marie Daulne이 이끄는 벨기에 밴드 Zap Mama와 프랑스인 아버지와 카메룬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Helene Faussart와 Celia Faussart 자매로 결성된 듀오 Les Nubians 등이 있다.

Zap Mama의 Marie Daulne은 영국, 미국, 프랑스처럼 흑인이 많지 않은 벨기에에서 피부색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다가 자신의 피부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미국 프로그램과 미국음악, 미국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후 레게와 소울 펑크 그리고 힙합을 피그미족(Pygmies)²³⁾ 음악과 접목시켜 인기를 얻고 있다.

Les Nubians은 "아프로피언" R&B 그룹으로 양부모의 프랑스와 카메룬 문화와 유년기 시절을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매력적인 아프리카인 음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사람, 역사, 이야기를 포함한 문화를 전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영국 출신의 소울과 까다로운 재즈 음악가들 중 최정상급들을 뽑아 독자적으로 '아프로피언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이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함으로써 사운드, 비트 등을 통해 청중들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960년대에 인종 차별과 자본주의의 억압에 대한 반항과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1980년대에 대중화되고 구체화된 흑인 스타일은 21세기 아프리카인의 패션에 있어서는 흑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의 표현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Zap Mama<그룹 1>²⁴⁾와 Les Nubians<그룹 2>²⁵⁾은 아프로(afro), 브레이드(braid), 드래드럭스(dreadlocks) 등 아프리카계의 유전적 신체 특성에 기인한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강조하고 아프리카 원시 부족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모티브와 신체노출이 많은 원시 스타일, 원색적 컬러, 목걸이, 뱅글 등의 장신구를 활용한다. 이와 동시에 탑과 진과 같은 캐주얼 아이템과 홀터 넥, 하

이힐 등의 서구적이고 여성의 관능성을 강조한 디테일 및 장신구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유러피언적 복수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2) 자와이언(Jawaiian)

자와이언은 전통적인 하와이 민속음악을 모던 록(modern rock), 힙합(hip hop)등과 접목한 하와이의 음악 스타일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자메이카에서 발전한 장르인 레게를 하와이 음악과 결합한 일종의 하와이안 레게음악이다²⁶⁾.

레게음악은 세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 태평양 섬의 원주민, 마오리, 호주 원주민과 같이 역사적으로 억압받고 꺾박받은 에스닉 집단과 민족들에게 인기 있다. 하와이와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1980년대 초 레게와 지역 음악을 혼합하여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지역 음악의 새로운 장르로 인식되었고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지배적인 지역 음악이 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하와이의 젊은 음악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자와이언 뮤직 스타로는 B.E.T. (Big Every Time)〈그림 3〉²⁷⁾, Chief Ragger〈그림 4〉²⁸⁾, Pati, Hawaiian Time, Justin, Bruddah Norm 등이 있다.

자와이언 뮤직은 춤을 추기에 알맞은 비트로 되어 있어서 하와이 섬의 음악팬들을 사로잡았으며 현재까지도 음악 장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와이언 뮤직은 하와이의 인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폴리네시아 국가의 음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와이언 뮤지션들은 외모와 패션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수 정체성을 표출하는데, 수염을 기르거나 길게 끈 헤어스타일과 같이 꺾박받은 에스닉의 저항성 및 하와이 원주민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한 외모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하고, 휴양지인 하와이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계적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된 박시형 티셔츠와 팬츠 등 현대적인 캐주얼 아이템이나 서핑과 같은 스포츠웨어 스타일을 반영한

룩을 착용하기도 함으로써 하와이언 원주민과 하와이언 지역 문화 정체성을 표현한다.

3) 레가톤(Reggaeton)

레가톤은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음악을 일컫는 레게(reggae)와 주로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클럽에서 춤추기 위한 음악을 일컫는 댄스홀(dancehall) 등 자메이카 음악의 영향을 받아 봄바(bomba), 플레나(plena), 메렝게(merengue), 바차타(bachata) 등의 라틴음악뿐 아니라 힙합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혼합한 것으로 격렬한 비트, 독특한 리듬, 빠른 스페인어, 영어 혹은 스팅글리쉬(spanglish)로 된 가사와 랩핑(rapping)²⁹⁾, 정렬적인 댄스홀 멜로디 등으로 구성된다.

레가톤은 1970년대 파나마에서 제작된 최초의 레게음악에서 시작되는데, 파나마 운하에 자메이칸 노동력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20세기 초 이래로 파나마의 스페인어 문화에 자메이칸 레게가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되었다³⁰⁾. 레게음악은 흑인들이 겪은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억압적 정치에 대한 반발, 흑인 의식 고취 등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³¹⁾. 1990년대 자메이칸 라가(ragga)³²⁾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푸에르토리코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힙합과 다른 스타일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만의 '리듬(riddims)'³³⁾을 만들어내면서 레가톤을 성장시켰다. 이는 라틴음악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주류 대중문화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활동하는 다수의 레가톤 뮤지션들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다³⁴⁾.

레가톤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Daddy Yankee〈그림 5〉³⁵⁾, Don Omar〈그림 6〉³⁶⁾와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던 장르인 레가톤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Ivy Queen, 쿠바계 미국인 PITBULL 등이 있다. 1970년대 출생한 20대-30대의 이들 뮤지션들은 미국으로의 이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영어와 스페인어의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미국과 출신 국가의 두 문화를 반영한 음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쿠바 뿐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온두라스,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는 여러 국가에 걸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가통은 스페인어 레게 랩을 통해 라틴 아메리칸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수백만의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며, 과시적이고 두드러진 언더그라운드 청년문화를 창조한다. 또한 MTV, BET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음악과 패션이 빈번하게 노출됨으로써 주류 음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레가통 뮤지션은 음악과 함께 패션에 있어서도 라틴계 미국인과 라틴아메리칸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패션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권위, 사회적, 물질적 성공을 상징하는 고급 테일러링으로 이루어진 고가의 유명 상표 수트, 실크 넥타이 등으로 대표되는 상향 지향적 욕망을 표출하는 과시적 스타일과 혈렁한 셔츠와 홀러내릴 듯이 몸에 걸치는 (body-hugging) 큰 바지 등으로 대표되는 힙합 패션의 스포츠웨어, 캐주얼 아이템을 자유롭게 레이어링함으로써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의 주변부와 범죄, 불법과 관련되어 전통적 가치관과 주류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하고 동료들과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언더그라운드 청년문화가 반영되어 문신, 멘디(mehndi)³⁷⁾, 피어싱, 신체노출이나 쇠사슬, 체인, 금속 징 등의 액세서리, 머리카락을 면도 하듯 짧게 깎은 클로즈 컷 헤어스타일 등 폭력적, 저항적 패션과 외모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레가통 뮤지션은 서인도제도 출신 혼혈들이 성장하면서 형성된 독특하고 흥미로운 음악스타일을 추구하며, 이들의 패션은 라틴 문화와 자메이칸 레게의 융합과 라틴계 미국인의 다인종, 다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4) 아시안 힙합(Asian Hip Hop)

아시안 힙합은 아시아계 아티스트들이 작곡하거나 녹음한 힙합의 퓨전 장르를 일컬으며 대만, 홍콩, 중국 본토를 포함하는 중국 힙합, 일본 힙합, 한국 힙합,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힙합, 말레이시아 힙합, 싱가포르 힙합, 남아시아의 인도힙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아시안 힙합은 미국의 힙합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수용한 것이 특징이며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거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힙합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대만의 MC HotDog과 같은 아티스트에 의해 시작된 후 홍콩의 LMF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중국 본토의 Hei Bomb, Dragon Tongue, Yin Tsang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스트리트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이미 브레이크 댄스, 그라피티 등 다양한 힙합 요소들이 도입되었고 1994년과 1995년에 이르러서는 상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0년에 이르러 일본 전역과 세계로 확산되었다³⁸⁾. 특히 영어 발음 구사에 주저하던 초기 일본 힙합 세대와 달리 10대 중심의 래퍼들이 일본 주류 음악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를 젊은 세대의 언어나 스타일로 전환하여 주류 정치적 가치를 쟁점화하고 있다³⁹⁾.

일본 힙합은 미국 내 힙합 문화의 확산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일본 힙합 추종자들은 태닝으로 얼굴을 검게 만들고 다양한 의상을 추구하고 있다⁴⁰⁾. 미국 힙합 문화의 모방적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일본 힙합은 일본 문화를 담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등에서 동양과 서양의 대조적인 문화를 통해 혹은 동양 문화의 요소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⁴¹⁾.

한국 힙합은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확장되어 왔다. 몇몇 팬들은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미국 힙합 아티스트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힙합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 래퍼 듀오 Drunken Tiger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은 문화적 교환과 인종적 조화를 강조하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필리핀 힙합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서서히 발전하다가 Magalona가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랩으로 데뷔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필리핀 힙합은 힙합 문화와 미국 서부 해안 지방을 따라 형성된 거대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미국의 랩뮤직이 필리핀에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다. 수많은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Angeles City의 Clark Air Base, Olongopo지역의 Subic Bay Naval Base

<표 1> 인트라컬추럴리즘과 어번 뮤직 패션

| 음악 장르 | 구성요소 | 내적특성 | 외적표현 |
|------------------------|---------------------------|--|--|
| 아프로 피언 (AFRO-PEAN) | 아프리카 + 유러피언 | 흑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과 함께 유러피언 문화 정체성의 표현 | 아프로, 브레이드, 드래드럭스 등의 헤어스타일 / 기하학적 모티프와 신체노출 많은 원시 스타일 / 원색적 컬러 / 목걸이, 뱅글 등의 장신구 + 탑, 진 등 캐주얼 아이템 / 홀터 넥, 하이힐 등의 서구적이고 여성의 관능성을 강조한 디테일 및 장신구 등 |
| | 대표뮤지션 |  <p>〈그림 1〉 ZAP MAMA</p>  <p>〈그림 2〉 LES NUBIAN</p> | |
| 자웨이언 (JAWAII-AN) | 자메이칸 레게 + 하와이언 | 억압받고 폄박받은 하와이언 원주민과 하와이언 지역 문화 정체성 표현 | 수염을 기르거나 길게 끈 헤어스타일 등 폄박받는 에스닉의 저항성 및 하와이 원주민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한 스타일 + 휴양지인 하와이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박시형 티셔츠와 팬츠 등 캐주얼한 아이템 |
| | 대표뮤지션 |  <p>〈그림 3〉 B.E.T.</p>  <p>〈그림 4〉 CHIEF RAGGA</p> | |
| 레가톤 (REGGAE-TON) | 자메이칸 레게 + 라틴 + 힙합 + 일렉트로닉 | 라틴 문화와 자메이칸 레게의 융합과 라틴계 미국인의 복수 정체성 표현 | 고급 유명 상표의 블랙 슈트, 실크 타이 등 주류/상향 지향적 욕망을 표출하는 스타일 + 스포츠웨어, 캐주얼 아이템을 레이어링한 힙합 스타일 / 쇠사슬체인·금속 징 등의 액세서리, 문신·피어싱·신체 노출, 머리카락을 면도하듯 짧게 깎은 클로즈 컷 헤어스타일 등 폭력적, 저항적 스타일 |
| | 대표뮤지션 |  <p>〈그림 5〉 DADDY YANKEE</p>  <p>〈그림 6〉 DON OMAR</p> | |
| 아시아 힙합 (ASIAN HIP HOP) | 아시아 + 아메리칸 힙합 | 아시아 문화를 미국 힙합 문화와 접목하여 문화적 교환과 인종적 조화 추구 | 아시아 각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슈를 반영한 그라피티 + 스포츠웨어, 캐주얼 아이템을 자유롭게 레이어링한 아메리칸 힙합 스타일 |
| | 대표뮤지션 |  <p>〈그림 7〉 LMF</p>  | |

등과 같은 도시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필리피노 아메리칸, 라티노 군인은 이러한 새로운 장르에 빨리 노출된다.

인도 힙합은 서구의 힙합을 인도 음악과 혼합하여 창조한 퓨전 음악 유형으로 단어를 제거하거나 인도로 바꾸기도 하고 오리지널 트랙의 코러스를 편자 비어나 힌두어 단어로 바꾸기도 한다. 인도 래퍼들은 인도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을 워드플레이(wordplay)하고 독창적으로 뒤섞는데 뛰어나다. 대표적인 남아시아 힙합 아티스트와 그룹으로는 Nivla, the1shanti, One Signata Nach, Panjabi MC를 들 수 있다. 인도 랩 문화를 선도한 대부분의 남아시아 힙합 아티스트들은 북미와 유럽의 이민자들이다.

아시아 힙합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LMF<그림 7>⁴²⁾이 있는데 Lazy Mutha Fucka 혹은 Lazy Muthafucka라고도 하며 홍콩 출신의 힙합 그룹이다. 1993년 결성되어 2003년 해체하였으며 현재는 멤버 각각이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밀도 주거 환경에서 비롯된 홍콩 하류층이 처한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들의 노래는 홍콩 젊은이들과 힙합문화와 경향이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으며 광동팝(Cantopop)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영화 배우 Bruce Lee를 중국 젊은 세대의 역할 모델로 사용하였다.

아시아 힙합 뮤지션들은 아시아 문화를 미국 힙합 문화와 접목하여 문화적 교환과 인종적 조화 추구하고 있으며 스포츠웨어, 캐주얼 아이템을 자유롭게 레이어드한 아메리칸 힙합 스타일의 패션을 선호하는데 특히 아시아의 각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슈를 반영한 그라피티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어떤 뮤직 패션에 표현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특성을 <표 1>로 정리하였다.

2. 인트라컬추럴리즘과 21세기 패션 광고

인트라컬추럴리즘적 다중 정체성의 가시화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소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미 20세기 포스트모던 패션에서 John Galiano, Jean Paul Gaultier 등의 디자이너들이 소외계층과 소수민

족을 모델로 등장시켜 소수나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디자이너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주류 잡지 인쇄 광고에서 유색인종 모델들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이상적인 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계급, 인종, 민족, 지역, 세대, 성, 성별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구 백인을 이상적 미의 기준으로 여기던 이전 시대와 달리 흑인, 동양인, 혼혈인, 복합 인종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중매체나 상업성 광고 캠페인에서 부각시킴으로써 인트라컬추럴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의 주류 매거진 표지모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정도가 소수자 집단⁴³⁾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12.7%에 머물렀던 1997년의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동일 기간 동안 패션 매거진들도 백인이 아닌 비백인을 표지 모델로 채택하는 비율도 두 배로 증가하였다⁴⁴⁾. 이에 대해 Teen People의 편집장인 Amy Bamett은 "우리는 점점 더 인종적이고 계급적인 측면을 초월한 이국적이고 중심에서 벗어난 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혼혈이 포함된다. 미국 미인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고 평했다⁴⁵⁾.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인종의 특징을 부각시켜 광고를 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 Louis Vuitton, YSL Beauty, GAP 등은 광고 캠페인에서 특정 인종으로 정의할 수 없는 2·3·4중 혼혈 등 인종적으로 모호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정 문화권의 복식이나 인종의 패션 스타일로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룩과 미를 제시하고 있다⁴⁶⁾.

Louis Vuitton 광고모델 Jennifer Lopez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라틴, 아시아계 피가 섞여 이국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8>⁴⁷⁾, 08 S/S 시즌 광고에서는 백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인 Stephanie Seymour, Eva Herzigova, Naomi Campbell, Claudia Schiffer, Angela Lindvall and Natalia Vodianova를 동시에 채택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글

〈표 2〉 인트라컬추럴리즘과 패션 광고

| LOUIS VUITTON | YSL | GAP | H&M |
|--|--|--|---|
|  |  |  |  |
| 〈그림 8〉 03/04 F/W | 〈그림 10〉 06 S/S | 〈그림 12〉 04/05 F/W | 〈그림 14〉 05 S/S |
|  |  |  |  |
| 〈그림 9〉 08 S/S | 〈그림 11〉 06/07 F/W | 〈그림 13〉 07/08 F/W | 〈그림 15〉 06/07 F/W |

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9)⁴⁸⁾. YSL Beauty의 모델 Ujjwala는 인도 출신으로,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여성의 특징을 두루 갖춰 그야말로 인종적으로 모호한 매력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며(그림 10)⁴⁹⁾, Yve Saint Laurent 역시 06/07 F/W 시즌 광고에서 캐나다 출신인 Shalom Harlow와 함께 아시아계 모델 Yasuyuki Shuto를 채택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권 소비자 모두에게 호소력을 갖고자하는 브랜드 전략을 반영하였다(그림 11)⁵⁰⁾. GAP은 덴마크인, 프랑스인, 멕시코인, 인도인, 스페인인 등의 피가 흘러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도인 등의 복합적 혈통을 가진 Jessica Alba(그림 12)⁵¹⁾, 중국 이민 2세 Lucy Liu(그림 13)⁵²⁾를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H&M 역시 글로벌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흑인, 유색인 등을 다양한 인종적 특성을 가진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그림 14)⁵³⁾ 특히, 06/07 F/W 시즌에는 유명

연예인 Madonna와 함께 그녀의 공연 스태프 모두를 모델로 채택하여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15)⁵⁴⁾.

인종적 모호성을 지닌 세대들이 사회, 문화, 예술계의 우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다인종 혼혈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국제화되어가는 다른 국가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흑인, 백인, 아시안이라는 전통적 구분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Allure의 잡지 편집장인 Linda Wells는 “5년 전만해도 푸른 눈의 금발모델들이 80%이상 잡지 모델을 했는데 이제 독자들은 그런 것을 진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여러 인종의 아름다움이 모자이크된 미인이 새로운 우상”이라고 지적했다⁵⁵⁾.

광고는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이라

는 전략적 도구의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를 반영하고 형성하는 문화장치로 시대정신의 결정체이며 시대의 사고를 반영하는 언어로 불린다. 따라서 인트라컬추럴리즘을 반영한 광고는 다중 문화적이며 복합 인종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창조하여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캠페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인트라컬추럴리즘과 21세기 하이패션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패션계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주의적이고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다중적 인종정체성을 지닌 이민 세대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적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21세기 하이패션 디자이너로 Narciso Rodriguez, Hussein Chalayan, Vera Wang, 두리 정 등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하며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이들 디자이너는 인트라컬추럴리즘적 다중 정체성을 반영하여 자신이 활동하는 북미나 유럽의 문화와 함께 출신국의 모(母)문화의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절충하고 융합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통해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하게 혼합시켜 창조적인 형태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패션에서 나타난 이질적인 타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절충적인 양식인 이국 취향이나 에스닉, 오리엔탈, 프리미티브, 포클로릭 패션과 미적 특성이나 조형적 특성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서양을 주제로 보고 문명화된 주류 서구인의 관점에서 이국적인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 등 패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패션 경향과 달리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전통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혼합하는 내재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인트라컬추럴리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이들 디자이너는 디자인 측면에서 다문화적이고 복합인종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인트라컬추럴리즘적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 의식적 측면에서 인트라컬추

럴리즘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내 소수 집단의 일원인 이들이 패션산업에서의 성공으로 인하여 획득한 부와 사회적 지위 상승에 힘입어 주류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성공 신화가 주류 매체를 통해 부각됨으로써 이들의 모문화와 전통 복식 문화적 요소에 대한 주류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1) Narciso Rodriguez

Narciso Rodriguez는 쿠바계 미국인으로 New Jersey로 이민 후 부두 하역부에 종사한 부모님이 미국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이 되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공부하여 Cerruti, Donna Karan, Calvin Klein을 거쳐 1998년 자의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2004년, 2005년 '미국패션협회(CFDA) 패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너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⁵⁶⁾.

Narciso Rodriguez는 커팅, 페인팅, 드로잉, 건축에 매료되어 미니멀한 건축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인 영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와 재료의 형태 창조를 추구한다. 또한 거리의 일상사를 디자인 영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그의 디자인에는 Narciso Rodriguez 자신의 다중적인 문화적 배경이 반영되고 있다.

Narciso Rodriguez의 디자인에는 인디오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문양과 카리브 블루와 바이올렛 컬러 등 쿠바 카리브인의 미적 감각과 미국과 유럽에서의 교육과 실무 경험 등을 반영한 장인정신과 숙련된 테일러링을 의복 구성과 디자인 요소에 반영하여 창조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16)⁵⁷⁾.

2) Hussein Chalayan

Hussein Chalayan은 터키계 영국 디자이너로 8세에 부모와 영국으로 이민 후 영국 시민이 되었으며 1993년 Central Saint Martins을 졸업하였다. 1995년 런던 패션 디자인 어워드에서 100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우승하였으며, 25세에 'Absolut'라는 회사를 세워 1995년 10월 영국 패션 위크에 참가하기 시작하

였고, 1999년과 2000년에는 영국 패션협회 패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대영제국 훈장(Member of the British Empire)을 수상하였다.

Hussein Chalayan은 터키계 키프로스인인 부모의 영향과 런던 이주 후 사회적 편견, 역사, 이민, 정치, 자신의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디자인 영감으로 활용하고 있다⁵⁸⁾.

Hussein Chalayan의 디자인은 블랙과 화이트 같은 차분하고 화려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지나 코튼 같은 소박한 소재를 화려한 무늬나 장식 없이 사용한다. 또한 다양한 의외에서 형성되는 드레이퍼리가 자연스러운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울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신체의 역할을 고찰하여, 이 접근방법을 복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연구 결과를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실험한다.

Hussein Chalayan의 패션디자인에는 고원이 많고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 일교차가 심해 수분 증발 억제, 강한 햇빛 차단, 모래 바람으로부터의 신체 보호 등을 위해 튜닉형의 전개형이나 드레이퍼리형이 많으며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덮고 여러 겹 겹쳐 입는 스타일로 구성된 서남아시아 복식 특성이 많이 반영되며, 여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슬람 종교의 영향으로 '은폐성'을 갖는 차도르(chador), 히잡(hijab) 등 쓰개형의 베일이 사용되는 등 매 시즌 모문화로부터의 영감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7)⁵⁹⁾.

3) Vera Wang

Vera Wang은 웨딩드레스로 명성을 획득한 중국계 미국인 디자이너로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파리 대학을 거쳐 Sarah Lawrence collage에서 예술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소녀 시절 피겨스케이팅을 하여 미국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 쉽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나, 1968년 올림픽대표 선수가 되는데 실패하자 패션에 몰두하였으며, 패션 잡지 회사인 Vogue에서 최연소 편집장으로 일했다. 이후 Ralph Lauren의 여성 액세서리 디자인 디렉터로 활동하였

으며, 1990년 독자적 패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5년과 2006년 미국패션협회(CFDA) 패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였으며 향수, 보석, 아이웨어, 신발, 하우스웨어 컬렉션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다.

Vera Wang은 전통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추구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형태나 미의식을 반영하기보다 중국 전통복인 치파오의 인체 우선적 형태를 강조하여 서양화된 구조와 절제된 라인으로 형성된 실루엣을 활용하고, 치마 양쪽 단의 슬릿, 상의의 트임 등 중국복식에 나타난 디테일을 적용하거나 실크 소재를 사용하며, 용, 나비, 연꽃, 한자 등 다양한 중국 전통문양, 매듭단추, 자수기법을 일부 사용하는 등 모문화와 서구문화의 절충적 혼합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8)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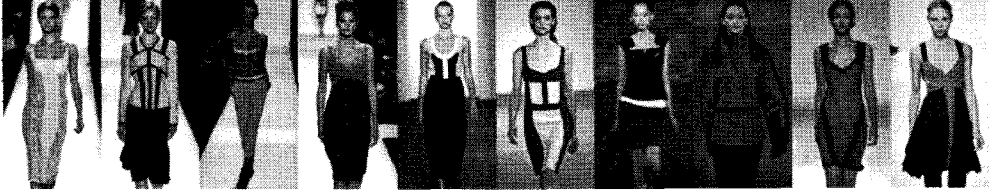



4) 두리 정

두리 정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4세에 미국으로 이민, Parsons 졸업 후 뉴저지에서 운영하는 부모의 세탁소 지하실에 가게를 차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Doo. Ri'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이후 뉴욕과 전 세계 40곳에 매장을 갖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미국 패션협회 패션 어워드에서 '신인 여성복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였다

두리 정은 몸에 꼭 맞는 형태가 아니라 인체의 활동을 편안하게 하는 여유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인체를 감싸며 공간의 미를 충분히 활용하고 장식적인 화려함보다 몸을 전체로 해석한 여유와 차분함이 있는 비구조적 디자인 및 디테일을 통해 동양복식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색상과 소재가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는 동시에 한국 고유문화와 전통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그림 19)⁶¹⁾.

이상에서 고찰한 21세기 하이패션 디자이너와 그들의 2004년 S/S부터 2008 F/W에 걸친 10개 시즌 작품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의 대표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인트라컬추럴리즘과 21세기 하이패션 디자이너

| 디자이너 | 디자이너 및 패션 디자인 특성 | |
|-------------------|--|---|
| Narciso Rodriguez | 쿠바+미국 | -인디오 문화의 기하학적 문양 -화이트, 카리브블루, 바이올렛 컬러 -미니멀하고 건축적인 구성 및 디자인 |
| <그림 16> |  | |
| | 04 S/S 04 F/W | 05 S/S 05 F/W 05 S/S 06 F/W 07 S/S 07F/W 08 S/S 08 F/W |
| Hussein Chalayan | 터키+영국 | -튜닉형, 전개형, 드레이퍼리형 -블랙, 화이트 등 차분하고 화려하지 않은 컬러 -소박한 소재 -런던의 창조성과 실험성 |
| <그림 17> |  | |
| | 04 S/S 04 F/W | 05 S/S 05 F/W 05 S/S 06 F/W 07 S/S 07F/W 08 S/S 08 F/W |
| Vera Wang | 중국+미국 | -인체우선형 치파오의 절제된 디자인, 실루엣, 디테일 -매듭단추, 자수기법, 부분 털 장식, 트임 -뉴욕의 심플하고 도회적인 세련미 |
| <그림 18> |  | |
| | 04 S/S 04 F/W | 05 S/S 05 F/W 05 S/S 06 F/W 07 S/S 07F/W 08 S/S 08 F/W |
| Doo. Ri | 한국+미국 | -전개형, 비구조적 디자인 및 디테일 -자연미의 동양적 소재와 색감 -한국 전통 문양 -뉴욕 여성의 세련미를 표현하는 컷팅과 드레이프 |
| <그림 19> |  | |
| | 04 S/S 04 F/W | 05 S/S 05 F/W 05 S/S 06 F/W 07 S/S 07F/W 08 S/S 08 F/W |

IV.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특성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을 청년문화나 하위 주체적 패션 정체성 표현 매체로 대표되는 어번 뮤직 패션과 주류 패션 정체성을 대표하는 패션 광고, 하이패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인트라컬추럴리즘이 반영된 패션은 서구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다원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단일하고 고정적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며 전통적 패션 원리를 해체하는 탈중심적 특성을 나타낸다.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탈중심적 특성은 탈장르, 탈국적, 탈인종, 탈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다.

탈장르적 특성은 목적과 재료, 기능과 형태에 따른 분류인 서로 다른 성격의 장르가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의 경우 미디어 소비문화 내에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텔레비전, 영화, 뮤직비디오, 문학과 예술 등에서 기존의 장르를 벗어나 서로 다른 성격의 장르나 재료를 혼합, 공유, 재창조를 통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로피언, 자와이언, 레가통, 아시안 힙합 등 인트라컬추럴리즘을 반영된 음악 장르는 2·3·4종의 복수 민족, 복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뮤지션들이 서로 다른 장르적 특성을 동시에 채택하고,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제시하는 패션 역시 두 가지 이상의 음악 장르별 패션 스타일을 혼용하여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탈국적 특성은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동인에 의해 세계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잦아지고 이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민족, 복합인종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들이 동일 집단 내에서 거주하며 자신들의 모문화와 이주를 통해 새롭게 속한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민이나 교육 혹은 커리어 때문에 여러 국가에 거주하면서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국가적 특성을 패션을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1세기 인트라컬추럴리즘적 특성을 지닌 어번 뮤직 장르의 뮤지션이나 이민 2·3세 이상의 하이패션디자이너들의 패션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프로피언은 뮤지션의 아프리카 출신국과 유럽의 이민 국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와이언은 자메이카와 하와이, 레가통은 라틴 문화와 아메리카, 아시안 힙합은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복수 국가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Narciso Rodriguez, Hussein Chalayan, Vera Wang, 두리 정과 같은 21세기에 이르러 크게 주목 받고 있는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는 각각 쿠바와 미국, 레바논과 프랑스, 터키와 영국, 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부모 혹은 자신의 출신국과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특성이 공존한다.

탈인종적 특성은 국제결혼, 혼혈 증가로 인종적 특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혈통주의를 벗어나 각 인종의 이국적인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해석적 사고와 미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성이나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적 특성을 수용하고 이를 혼용, 차용함으로써 변종을 창조하며 복합 인종적 특성을 나타낸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2·3·4종 혹은 그 이상의 혼혈 등 인종적으로 모호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서구 백인을 이상적 미의 기준으로 여기던 이전 시대의 인종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흑인, 동양인, 혼혈인, 복합인종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새로운 미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복합 인종에 대한 사회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탈문화적 특성은 각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용인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경계를 파괴를 의미하는데, 다양한 문화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을 불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각 스타일을 대조, 결합, 병치를 통해 혼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아프로피언 뮤지션들이 자신들의

모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복식 아이템 및 특성과 서구적 디자인 및 디테일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경계를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레가통, 아시안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에서 고급 브랜드나 수트 중심의 고급 문화적 패션 특성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캐주얼이나 하위 문화적 패션 특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이나 아이템을 동시에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다문화주의는 비주류, 비서구, 제 3세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에 패션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의 소수 민족 스타일의 요소를 차용하거나 각 민족적 요소를 사용하여 서양 복식 문화 내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에스닉, 이그조틱, 오리엔탈 등의 패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을 통해 형성된 특성들로 극단적 이질성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을 화해시키고 완성된 형태로 혼합하여 재구성하는 패션 문화의 하이브리드나 퓨전 현상으로 특징지워진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은 패션의 표현 양식과 조형적 측면에서 서구와 비서구 복식문화의 하이브리드나 퓨전현상과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피상적으로 차용, 조합, 접목시켜 편집하는 이들 현상과 달리, 다민족, 다인종간 결합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세대들이 모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속한 문화권의 복식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다중적인 미의식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레가통, 아시안 힙합 뮤지션들의 고급 문화적 패션 스타일과 하위 문화적 패션스타일의 공유는 고가의 브랜드나 수트 차림으로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이와 대조적으로 억압받고 폄박받는 소수집단에 대한 집단 소속감을 강조하는 스트리트 패션이나 하위문화 스타일을 차용함으로써 반사회성과 저항성을 표출함으로써 인트라컬추럴리즘의 다중 정체성을 반영한다.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특성은 비서구의 서구 패션 스타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서구

의 비서구 복식 문화 요소의 피상적 차용이 아니며, 북미나 유럽 중심의 서구 대(對) 비서구의 대립 관계를 초월하여 다중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질적인 문화, 인종적 요소들이 융해되어 새로운 스타일, 이미지, 북으로 나타난다.

V. 결론 및 제언

인트라컬추럴리즘은 다민족 및 복합인종, 다중 문화적인 현대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유동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다른 문화보다 자신이 속한 문화와 집단의 전통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혼합하는 태도와 경향이다. 이는 급속한 글로벌화·세계화로 문화적 이식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문화의 공존과 문화 간 교류와 결합을 통해 동질성을 지향하던 서구 정치 세계 내에서 민족,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이 재발견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은 미디어와 소비문화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문화의 정통성에 얽매이지 않는 다중 문화적, 복수 인종적 특성을 가진 젊은 세대가 대중문화의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체성 표현 수단의 일부인 음악, 패션 등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을 반영하는 음악 장르로는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장르를 바탕으로 한 아프로피언, 자메이칸 레게와 하와이언을 바탕으로 한 자와이언, 자메이칸 레게와 라틴음악, 힙합, 일렉트로닉 음악장르가 혼합되어 창조된 레가통, 아시아와 아메리칸 힙합이 접목되어 창조된 아시안 힙합을 들 수 있다.

인트라컬추럴리즘을 반영한 광고는 계급, 인종, 민족, 지역, 세대, 성, 성별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구 백인을 이상적 미의 기준으로 여기던 이전 시대와 달리 흑인, 동양인, 혼혈인, 복합 인종을 모델로 부각시켜 다중 문화적이며 복합 인종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창조하고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캠페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1세기에는 두 개 이상의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주의적이고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다중적 인종정체성을 지닌 비서구 출신 이민 세대 디자이너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Narciso Rodriguez, Hussein Chalayan, Vera Wang, Doo. Ri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절충하고 융합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통해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하게 혼합시켜 창조적인 형태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탈중심화된 미적 특성은 목적과 재료, 기능과 형태에 따른 분류인 서로 다른 성격의 장르가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탈장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탈국적, 혈통주의를 벗어나 각 인종의 이국적인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해석적 사고와 미적 견해를 표현하는 탈인종, 각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용인하며 서로 다른 문화의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을 불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각 스타일의 대조, 결합, 병치를 통해 혼합하기도 하는 탈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합 인종 및 다중 문화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가 창조하는 인트라컬추럴리즘이 대중문화와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패션 스타일과 룩의 양상을 분석하고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 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수 민족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미래의 패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패션 영감 출처로서의 기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Martiniello, M.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pp. 65-66.
- 2) 김수경 (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11(3), pp. 387-403.
- 3) 권기영, 유영선 (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복식*, 26(2), pp. 69-85.
- 권하진, 김민자 (2006). 아시아인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 56(6), pp. 114-131.
- 4) 김희정, 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 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1), pp. 24-33.
- 이상례 (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한국, 몽골,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승희 (2000). *오리엔탈 퓨전 STYL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아, 정현남, 염혜정 (2005).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pp. 23-34.
- 최호정, 하지수 (2006). 21세기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직물 디자인. *복식*, 56(7), pp. 133-147.
- 최호정 (2007).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복식*, 57(4), pp. 159-173.
- 6) 김주연, 이효진 (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pp. 300-313.
- 7) 김후란, 은영자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Retro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2), pp.296
- 8) *Hypenated & Attitudes*. 자료검색일 2007.6.14,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9) *Intraculturalism*. 자료검색일 2008.7.16, 자료출처 <http://www.nhc.org.za>
- 10) *Intraculturalism*. 자료검색일 2008.7.16, 자료출처 <http://www.wikipedia.com>
- 11) *Intraculturalism*. 자료검색일 2008.7.16, 자료출처 <http://www2.warwick.ac.uk>
- 12)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 13) Copeman, P. & Scollen, R. (2000.6.1). Training, Tokenism and Productive Misinterpretation: Reflection on the After China Project. *Journal of Australian Studies*.
- 14) BET: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의 약자로 1980년 Robert L. Johnson이 워싱턴에서 창립한 미국의 젊은 흑인과 도시에 거주하는 청중 등을 타겟으로 한 미국 케이블 네트워크로 대개의 프로그램은 랩, R&B 뮤직비디오나 도회적 삶을 그린 영화나 시리즈물을 방영함.
- 15) 텔레노벨라(telenovela)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노블(novel)의 합성어로 중남미 국가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로, 매일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되는 일일극 형식을 띠고 있으며, 중남미 특유의 화려한 의상과 음악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며, 해피엔딩의 구조가 일반적인 스토리라인이 특징적. 최근 어린이, 청소년, 남성 등을 위한 작품이나 마약 등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작품이 제작됨.
- 16) 마이스페이스(MySpace)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로 톰 앤드슨(Tom Anderson), 크리스토퍼 드울프(Christopher DeWolfe)가 설립하였으며, 현재 폭스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소유하고 있으며 뉴스 코퍼레이션이 대주주. 2008년 2월 3일 기준으로 2억 7천만 개의

-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음악과 텔레비전 채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공식 진출.
- 17) Martiniello, M. *op. cit.*, p. 88.
 - 18) Frith, S., Straw, W., & Street, J.(2001). *Pop and Rock*. 장호연 역(2005). *케이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한나래, p. 86, p. 126.
 - 19) Diamond, B. & Moisala, P. (2000). *Music and Gender*.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201.
 - 20) *Urban Contemporary*. 자료검색일 2008.7.16, 자료출처 <http://www.wikipedia.com>
 - 21) Diamond, B. & Moisala, P. *op. cit.*, p. 215, p. 299.
 - 22) *Afropean*. retrieved 2008, May 1, from <http://www.urbandictionary.com>
 - 23) 피그미족(Pygmies): 인류학적으로 평균 신장 150cm 이하의 왜소종족의 총칭이며, 아프리카·동남아시아·뉴기니에 걸쳐 분포한다. 아프리카의 피그미는 피부색이 비교적 밝고 모발은 고수머리, 머리의 형태는 둥글며 피부의 털색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자이르의 삼림을 중심으로 열대우림 속에서 생활하는 삼림채집 수렵민을 일컫음.
 - 24) 자료검색일 2008.7.16, 자료출처 <http://www.zapmama.be>
 - 25) 자료검색일 2008.7.16, 자료출처 <http://www.flickr.com/photos/lesnubians>
 - 26) Kanāhale, G. (1979). *Hawaiian Music and Musicians*. Hawaii: Univ of Hawaii. pp.xxv-xxvii.
 - 27)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http://www.bigupradio.com>
 - 28) 자료검색일 2008.7.1, 자료출처 from [http://www.tropicislemusic.com\(left\)](http://www.tropicislemusic.com(left)), [http://www.myspace.com/chiefregga\(right\)](http://www.myspace.com/chiefregga(right))
 - 29) 랩핑(rapping): '빠르게 말하기'라는 뜻으로 원래 흑인의 하위문화에서 생겨난 말장난인 래핑이 유행의 주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언어전달의 한 가지 스타일이며 연주자가 초보적인 음악 바탕위에서 노래를 부른다고보다 빠르게 말하는 형식이며, 흑인들의 래핑 스타일은 유행있는 슬랭(slang)을 숨겨 줄 거를 없이 지껄이는 것이 특징임.
 - 30) Marshall, W. (2006.1.19). *The Rise of Reggaeton*, The Phoenix. 자료검색일 2008.5.1, 자료출처 <http://thephoenix.com>
 - 31) 김수련, 염해정 (2000). 레게패션의 디자인 연구. *복식*, 50(3), p. 135.
 - 32) 라가(ragga): 빠르게 드럼 연주와 작은 북으로 음을 조성하는 드럼 앤 베이스 음악.
 - 33) 리듬(riddim): 세대를 통해 전해져온 리드미컬한 패턴을 일컫는 단어로 특히 레게음악의 비트나 리듬.
 - 34) Dinham, P. Reggaeton, a new genre of Caribbean dance music sweeping the world. *Jamaica Prime-time*. retrieved 2008, May 1, from <http://www.jamaicans.com>
 - 35) 자료검색일 2008.5.1, 자료출처 <http://www.myspace.com/daddyyankee>
 - 36) 자료검색일 2008.5.1, 자료출처 [http://www.music-artists.org\(left\)](http://www.music-artists.org(left)), [http://www.flickr.com\(right\)](http://www.flickr.com(right))
 - 37) 멘디(mehndi): 헤나를 이용한 피부장식으로 일시적인 문신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소말리아 등지나 이들 지역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며, 1990년대 후반 서구에서 인기를 얻게 되어 헤나 타투(henna tattoos)라고 불리기도 한다.
 - 38) Takatsuki, Yo. Japan grows its own hip-hop. BBC News.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news.bbc.co.uk>
 - 39) Condry, I. (2006). *Hip-hop Japan: Rap and the Paths of Cultural Globaliz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56.
 - 40) Wood, Joe. The Yellow Negro. *Transition*, 73, pp. 40-67.
 - 41) Condry, I. Japanese Hip Hop.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eb.mit.edu>
 - 42)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us.geocities.com>
 - 43) 소수자집단(minority)은 육체적, 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며, 식민지의 토착민, 미국의 흑인, 서양 자국에서의 유대인이나 카톨릭 교도, 일본의 미해방 부락민 등이 전형적인 소수자 집단임. 동성애와 심신 장애인등이 포함되기도 함.
 - 44) Garcia, G. (2005). *The New Mainstream*. Collins Business. p.280.
 - 45) La Ferla, R. Generation E.A.: Ethnically Ambiguous.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08.5.1,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
 - 46) *Ibid.*
 - 47)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48)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49)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50)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51)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52)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53)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54)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wgsn.com>
 - 55) 이미숙 (2003.12.29). '인종모호성 세대' 뜬다: 2·3·4 중 혼혈... '명확한 구분' 무의미. *문화일보*.
 - 56) Jones, T., Rushton, S.(2006). *Fashion Now 2*. Taschen. pp. 384-385.
 - 57)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 58) Jones, T., Rushton, S. *Ibid.*, pp.266-269.
 - 59)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 60)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 61) 자료검색일 2008.4.1, 자료출처 <http://www.style.com>